제2강 기관의 탄생: 플라톤의 감각론

(1교시) J_jkJin01_040629_03.asf

◆ ‘기관’의 탄생: 플라톤의 감각론

플라톤은 『테아이테토스』에서 최초로 감각을 “영혼의 기관”이라 불렀다. 여기서 감각은 영혼을 위한 ‘도구Organ'로 간주된다. 플라톤은 그 누구보다도 감각과 사유를 분명하게 구별했다. 감각을 통합하는 ‘통각(sensus communis)’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감각을 종합하는 기능을 ‘영혼’에 돌렸다. 즉 지각은 지각 가능한 것들을 지각하여 우리 영혼에 나란히 올려놓기만 할 뿐이며, 그것들을 통합하여 인식을 산출하는 것은 결국 영혼이라는 것이다.

“영혼은 몇몇 것은 자기 자신만으로 탐구를 하지만, 다른 것들은 신체의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탐구한다.”

◆ 감각들의 위계

플라톤은 감각들을 분명하게 분리하며 감각들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대가 하나의 기관으로 지각한 것을 다른 기관으로 지각하는 것, 가령 시각으로 지각한 것을 청각으로 지각할 수 없고, 청각으로 지각한 것을 시각으로 지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느뇨?”

『티마이오스』에서는 감각의 위계를 세워 미각, 후각, 청각, 시각의 순으로 나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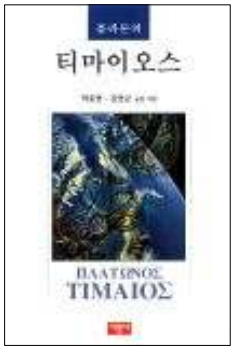
여기서 촉각은 언급은 되나 독립된 감각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촉각은 “몸 전체에 공통되는 느낌들(pathemata)"로서 특별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 티마이오스

‘이데아설'을 제창한 철인 플라톤의 '대화편'으로, 이 책은 대화편 가운데서도 후기에 속하는 저작인데, 바람직한 정치체제, 1만 1천여년 전에 물밑에 가라앉은 아틀란티스에 얽힌 전설, 우주의 탄생에서 인간과 다른 생물들의 탄생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대화편은 플라톤 자신의 철학뿐 아니라 당시의 천문학, 수학, 생리학, 의학, 광학, 화성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학문적 성과가 다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학문적 성과가 집약돼 있는 책으로 평가받는다.

◆ 시각의 특권

“그들은 기관 가운데서도 빛을 전달하는 눈을 먼저 만들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신은 시각을 고안해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는 하늘에 있는 지성의 회전들(천구의 회전운동)을 보고서 이것들을 우리 쪽의 사고의 회전들을 위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리와 청각에 관해서도 다시 같은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것들을 같은 목적으로 그리고 같은 이유들로 신들한테서 주어졌다고 말씀입니다.”

◆ 원소와 감각

<불=정사면체, 흙=정육면체, 공기=정팔면체, 물=정이십면체>

플라톤은 이 우주론을 감각론으로 확장시켜, 개개의 감각을 4원소의 관계 속에서 고찰한다.